

한국어 화제구문의 운율적 고찰

The Study of Prosodic Features in Korean Topic Constructions

황 손 문*

Son-Moon Hwang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prosodic features distinctively associated with Korean topic constructions (marked by *nun* or its variant *un*) and subject constructions (marked by *ka* or its variant *i*) as a way of explicating the role that prosody plays in differentially constituting their discourse messages. Using both spoken data elicited in controlled settings and spontaneous conversational data, an attempt is made to identify differentiating prosodic features and intonation contours associated with distinct meanings and functions of *nun*- and *ka*-constructions evoked in a variety of discourse contexts.

Keywords: Pitch, Intonation, Prosodic, Fundamental Frequency (Fo), Contour

1. 서 론

본 논문은 화제표지인 ‘은/는’을 포함하는 우리말 화제구문의 운율적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화제구문의 의미와 기능에 운율이 기여하는 측면을 조사하고, 그 관계의 체계성을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문-대답 맥락에서 쓰이는 화제구문의 화제구와 술부에서 관찰되는 음높이 형태와 억양구조를 살펴봄으로써, 화제구의 운율이 의문문과 서술문 및 의문사 의문문과 가부 의문문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먼저 화제표지가 쓰이는 서술문과 의문문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억양의 차이에 따라 화제구의 음높이(pitch)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순희는 어디로 놀러가요”라는 의문문과 “순희는 놀러 갔다왔어요”라는 서술문을 비교해 보면, 화제구인 ‘순희는’에 나타나는 경계성조와 술부구조에서 관찰되는 경계성조는 음높이의 성질에 따라 의문문과 서술문을 판단하는데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문문과 서술문의 경계성조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운율과 의미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은 녹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소음이 적은 연구실에서 직접 사람이 참여하여 컴퓨터에 직접 녹음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혹은 5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전라도 여성화자 3 명으로 하였다. 마이크로폰은 headset을 사용하였고 녹음은 미국 Scicon에서 개발한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C-Quirer로 분석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된 대화문을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읽도록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의문문과 서술문 자료를 추출하였다. 의문문은 의문사 의문문과 가부 의문문으로 나누었는데, 의문사 의문문은 ‘어디’와 ‘무엇’의 두 가지 의문사를 포함하는 문장이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화제표지가 사용되는 의문사 의문문과 가부 의문문 및 그에 대한 대답으로 발화되는 평서문을 포함하여 모두 8 개의 문장을 포함시켰다. 예문들 중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어색할지 모르나 보고자 한 내용이 명사를 반복해야만 화제표시어가 나타나므로 불가피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예문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이 논문은 다음에 계속하여 진행할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본 실험 자료를 통하여 화제구문의 다양한 운율적(prosodic) 특성을 구성하는 변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서로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기본주파수(F₀)에 영향을 미치는 패턴의 체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은 실험에 쓰인 대화문이다:

<한국어 화제표시 ‘은/는’의 실험문장>

Q : 순희는 어디에 있어요? (의문사-의문문)

A : 순희는 자동차 전시장에 있어요.

Q : 순희는 뭘 하나요? (의문사-의문문)

A : 순희는 자동차를 사려고 해요.

Q : 순희는 지금까지 자동차가 없어요? (가부의문문)

A : 예,

Q : 자동차는 어디 것이 좋아요? (의문사-의문문)

A : 자동차는 역시 현대가 좋아요.

Q : 선생님은 현대차를 타보셨나요? (가부의문문)

A : 예, 나는 현대차를 타봤는데 영수는 안 타봤네요.

2. 실험

실험에 사용한 예문들은 다소 어색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화제표시어인 ‘은/는’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우리말에서 사용되지 말아야하는 표현으로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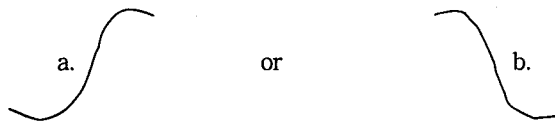
먼저 실험적인 접근 방법을 보면 주관적 음성학적 목록인 형이상학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에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 철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 형이상학적인 접근에 있어서 그러한 목록은 음운이론을 증명하거나 왜곡하도록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경험적인 접근은 방법론적으로 관찰하여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결합하는 것이다.

음성적/음운론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억양(intonation)에 있어서 실제로 화자가 단어를 발화하는 경우에 단어에서 단어로 옮겨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단어가 모여 하나의 문장을

1) 한국어 화제표시어 ‘은’은 자음 뒤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는’은 모음 뒤에서 실현된다.

이루어 억양을 나타내게 된다. 여기에서 (a) 실험적 목록이 억양에 대한 가설을 증명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고 (b) 만약 실험의 결과로 단어에 나타난 억양에 대한 기술이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증명될 수 없는 것으로 명확한 견해를 갖는다. 음성적 표시는 어떤 면에서 표면의 통사적 표시에서 도출되었다. 여기에서 필자는 화제표시어인 ‘은/는’이 갖는 음운론적인 것과 실질적인 도출인 음성적인 실체와 비교하여 서로 상호관계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Selkirk(1978)에 의하면 원래 “음운론적 표시는 실질적인 음성적 도출표시에 대한 적절한 형이 계층적 구조이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래서 그 구조의 각각의 마디는 음운론적 범주(가령 음보, 음절, 그리고 구 등)와 일치한다. 음성적 모델의 결과는 시간의 기능으로서 다양한 심리적/음향학적 매개를 가질 수 있다. 여기에서 나는 간략하게 명시적이고 실질적인 음향학적 매개의 형태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만약 우리가 음향학적인 매개에 제한을 둔다면 억양은 분절음의 길이, 기본주파수(Fo) 그리고 강도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심리적 매개들은 실질적으로 발화의 음운론적 분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측정할 수 있는 발화의 기본주파수 곡선은 음운론적 분절음 본래의 특징과 계속적으로 성대의 긴장을 일으키는 것 사이의 상호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비록 분절음이 유성음/무성음의 성질에 관계없이 성대의 긴장이 분절음의 길이에서 계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무성 분절음을 발화하는 동안에 기본주파수의 값을 탐지할 수 없다. 이것은 시간의 계속적인 기능으로서 사실상 기저의 음높이 곡선과 모델 기본주파수(Fo) 곡선의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소의 곡선은 상승(rising)과 하강(falling)을 구성하는 두 가지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다. 우리가 분절음의 간섭을 무시한다고 가정할 때 그런 굴곡(contour)의 전형적인 형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연결하는 ‘s-모양’의 곡선이다.



물론 처음과 마지막 값의 명시와 같이 곡선을 만드는 무한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기본주파수(Fo)의 곡선의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능은 각각의 목표점에서 3 개의 매개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 중 2 개는 곡선의 굴절점에서 결정된다. 발화의 측정은 두 성조의 높은 것에 더욱 더 활발한 음높이의 오름보다 더 빠르다는 Ohala와 Ewan(1973)의 결과와 일치한다.

3. 분석

청각적 분석에서 말을 할 때 시간을 다양하게 하는 음높이의 인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목록을 수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억양의 곡선은 음절마다 다른 점에서 선택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실험 방법에 따라 화제표시와 주격표시의 형태소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경계성조의 오름과 내림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화제 표시를 나타낼 때 화자로 하여금 문장 전

체를 읽도록 유도하였다. 하지만 주격표시인 경우는 대화상에서 발화를 측정한 것이다.

다음은 실험 상황에서 발화된 화제구문의 음높이(pitch)와 음세기(loudness)를 측정한 것이다. [그림 1]은 의문사 의문문의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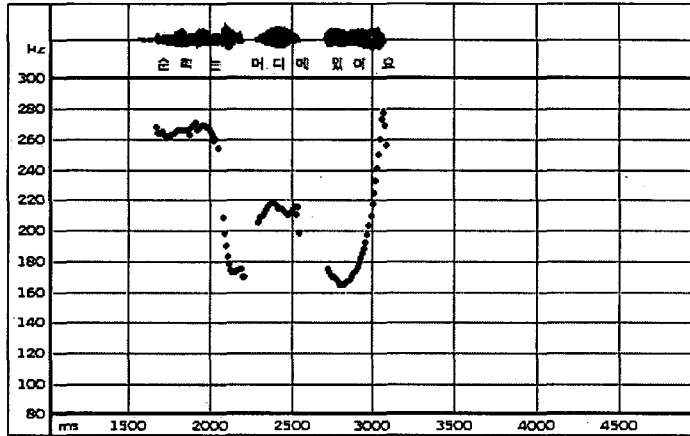


그림 1. 의문사 의문문

[그림 1]을 보면 화제구인 '손희는'의 억양구조를 보면 전반적인 억양의 하나의 경계성조는 오름-내림-오름(rise-fall-rise)의 윤곽(HLH%)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화제표시 '는'에서 음높이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양상을 보이면서 억양의 돌출림(prominence)이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음세기에 있어서 화제표시 '는'이 가장 높은 강도로 발화되고 있다.

술부의 억양을 살펴보면, 영어의 의문사-의문문에서는 문장 끝의 경계성조가 내려가거나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나,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말의 경우는 의문사 의문문의 문장 끝 경계성조가 상당히 높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그림 1]의 의문사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평서문의 형태를 갖는 화제구문의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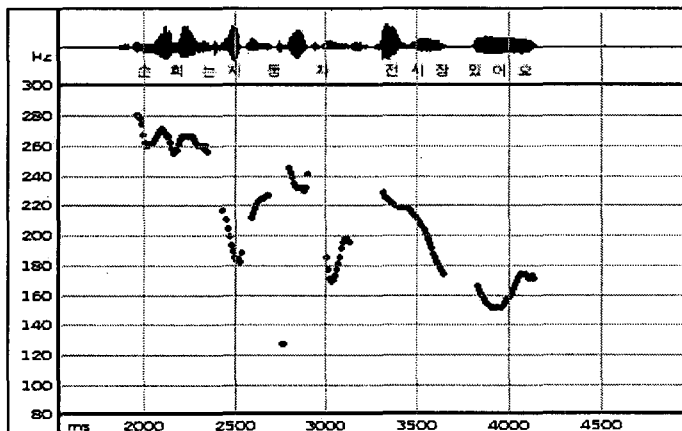


그림 2. 의문사 의문문에 대한 대답

[그림 1]의 의문사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 문장 끝의 경계성조는 내려갔다가 약간 올라가는 음높이를 보이고 있고, 화제표지인 '는'은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의 화제구와는 달리 [그림 2]의 화제구 '순회는' 전반에 걸쳐서 하향역양(falling)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순회'라는 바로 앞의 질문에서 소개된 지시대상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과 대조성이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을 보면 후속 질문으로서 발화된 가부 의문문의 음높이 및 음강세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화제표지 '은'이 새로운 지시대상인 '선생님'을 소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화제구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제표지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LH%) 자연스러운 음높이의 변화를 보인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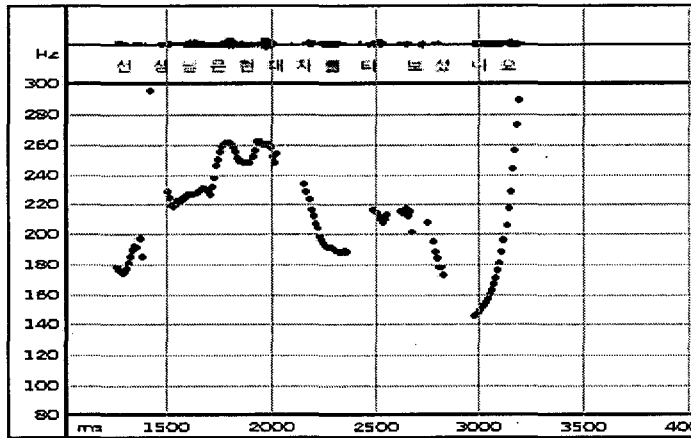


그림 3. 가부의문문

[그림 1]의 의문사 의문문과 [그림 2]의 평서문과 비교해 볼 때, [그림 3]³⁾의 화제구 '선생님은'의 역양은 전체적으로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림 1]의 의문사 의문문의 화제구 역양과 다소 유사하며 [그림 1]의 경우, HHL%처럼 보이며, [그림 3]은 LHH%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전반적인 하향세를 보이는 [그림 2]의 평서문 역양과 대조된다.⁴⁾ 이와

2)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화제표지 '은'도 변이형 '는'과 마찬가지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음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다.

3)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화제표지가 쓰인 의문사 의문문의 문장 끝 경계성조는 영어에서와 같이 내려가거나 오르내림(rise-fall)의 역양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대개 후속질문으로 발화되는 경우로 보다 강한 대조성(contrastiveness)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A의 두 번째 말차레에서의 화제구 '철수는'은 하향역양으로 발화되는 경우가 많다:

A: 순회는 어디에 있어요?

B: 모르겠어요.

→ A: 그럼 철수는 어디에 있어요?

4) 물론 모든 서술문에서 화제구가 하향역양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화제구의 하향역양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의문사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 발화된 서술문에서 앞의 질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림 3]의 가부의문문에서 화제구의 지시대상인 '선생님'은 이인칭 지칭어로서 상황적으로 주어진 지시대상이면서 새로운 화제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담화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1]에서와 같이). (Kim 1993) 따라서 화제구문 '선생님은'이 급격한 상향억양을 보이는 것은 해당 지시대상의 주격 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주어진 정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즉 그리고/혹은 새로운 화제를 소개하는 담화행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⁵⁾

[그림 4]의 화제구문은 [그림 3]의 가부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 발화된 서술문의 음높이 및 음강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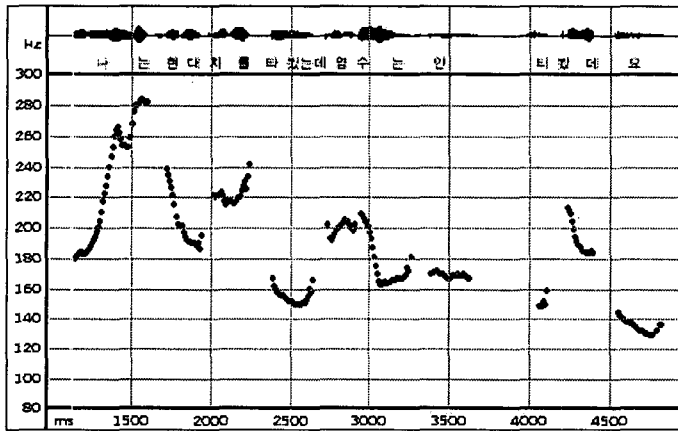


그림 4. 가부의문문에 대한 대답

가부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 발화된 [그림 4]의 서술문은 대조성이 상당히 명시적으로 부각되는 경우이다. [그림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화제구가 급격한 상향억양을 보이고 화제표지 '는'에 돌돌림(prominence)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는 음높이 변화가 강한 대조성을 표시하는 맥락화 단서(contextualization cue)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 화제구('나는')와 명시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두 번째 화제구('영수는')에서는 화제표지 '는'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LH%) 음높이 변화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하향억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음강세에 있어서 화제표지 '는'이 다른 경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약강세를 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조관계에 있는 첫 번째 화제구와 두 번째 화제구는 전반적인 억양윤곽, 화제표지의 음높이 변화 및 음강세에 있어서 모두 대조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⁶⁾

문에서 언급된 지시대상이 반복해서 언급되어도 phrase break가 발생한다면 억양은 상승(rise) 패턴을 보일 수 있다.)

- 5) 특히 일반적으로 이미 앞에서 소개된 지시대상을 다시 지칭하는 화제구가 의문문에 사용되는 맥락에서는 상향억양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억양과 지시대상의 정보성 및 담화기능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 6) 이와 같이 두 개의 화제구가 명시적으로 대조되는 경우 항상 이와 같이 첫 번째 화제구가 두 번째 화제구보다 보다 운율적으로 현저하게 발화된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 [그림 4]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두 번째 화제구가 돌돌림을 받고 음강세를 받는 경우도 일상대화

다음으로 한국어 주격표지인 ‘이/가’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한국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발화하는 과정에서 화제표지인 ‘은/는’보다 주격표지인 ‘이/가’의 경우에는 빈번히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화제표지인 ‘은/는’은 뒤에 서술적(predicate)인 것에 초점을 받지만 주격표지 ‘이/가’는 기능적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화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니면 화제 표지어와 주격 표지어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억양의 차이를 보여 주는지를 같은 상황에서 대화형식으로 실험을 해보겠다.

<한국어 주격표지 ‘이/가’의 실험문장>

Q : 어디에 있었어요?

A : 순희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서술문)

Q : 왜요?

Q : 순희가 어디에 있어요? (의문사-의문문)

A : 지금 주차장에 있어요.

Q : 선생님이 나를 찾았다고요? (가부의문문)

A : 예.

주격표지어인 ‘이/가’는 화제표지어인 ‘은/는’ 보다 발화상에서 나타나는 환경이 더 제한적이다. 화제표지어 ‘은/는’의 경우와 달리 주격표지인 ‘이/가’는 그 자체가 초점을 받기 때문에 대체로 화제표지 처음에 나올 수 없다. 예를 들면 “순희가 어디 있어요”에서 참여자 이외에 “순희”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화제표지 처음에 나올 수 없다. 모문의 주어로 화제표지어가 나타나지만 주격표지어는 모문의 주어로 나타나기보다는 종속절의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주격표지인 ‘이/가’의 경우도 화제표지 ‘은/는’과 마찬가지로 ‘이’의 경우 자음 뒤에서 나타나고 ‘가’의 경우에는 모음 뒤에서 나타난다.

김기호(2000)에 의하면 억양의 경우에 서술문과 의문문은 경계성조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서술문에서는 내림조의 경계성조가 나타나고 의문문은 오름 성조로 나타나는 것이 큰 차이이다. 이러한 오름 성조는 발화상에서 질문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림 5]는 주격표지 ‘가’를 갖는 서술문이고 [그림 6]은 의문사-의문문에서 주격표지를 갖는 문장이다.

[그림 5] 주격표지인 서술문에서 ‘가’의 경우에 [그림 6]에서 보여 준 것처럼 급격한 내림의 경사를 보여 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서술문과 의문문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격표지 다음에 또 다른 격을 나타내는 요소가 나타날 경우에는 격표지가 없는 것보다 완만한 경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순희가’와 ‘당신을’이 동등한 위치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완만한 경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는 주격표지 ‘가’ 다음에 격을 갖는 요소가 오는 서술문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담화 상에서 발화된 주격표지의 음높이와 음세기를 측정한 것이다.

서 많이 관찰되고 있다. 사실 대조관계에 있는 화제구가 모두 운율적으로 부각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후속연구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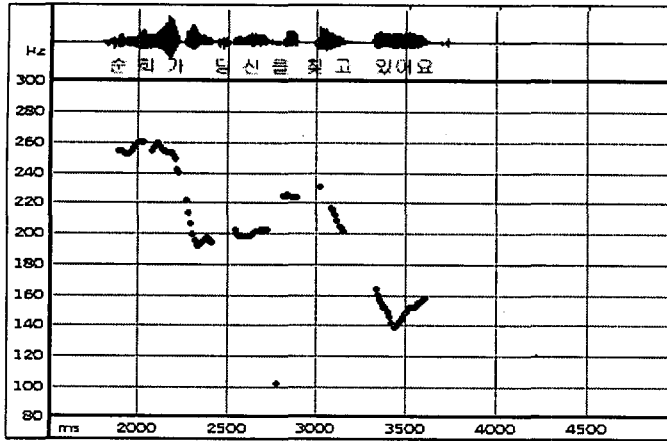


그림 5. 주격표지 서술문

[그림 5]에 있어서 주격표시어 다음에 격표지어가 올 경우에는 완만한 경사를 보인다. [그림 5]와 [그림 6]의 차이는 주격표시어 다음에 격이 오는 경우에는 완만히 내려가는 반면 Wh-의문사가 오는 경우에는 급격히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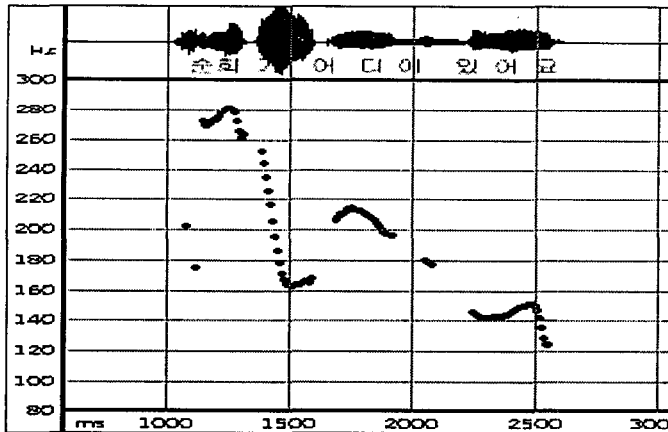


그림 6. 주격표시 의문사-의문문

실험 방법에 따라 경계성조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문장을 읽도록 유도할 때와 대화상에서의 경계성조는 달리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주격표시인 '가'의 경우에 의문사-의문문에 있어서 현저히 내려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화제표시 '는'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데 화제표시의 경우에 완만한 내림조를 관찰하였다. 화제구인 '순희는'과 술부구조(predicate)에서 관찰되는 경계성조는 음높이의 성질에 따라 의문문과 서술문을 판단하는데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격 표시어에서는 단순히 격표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현저히 하강하는 곡선을 그리지 않나 생각이 든다. 문장 경계에서도 화제표시어인 '은/는'인 경우에 의문문에서 내림-오름조를 보여준 반면 주격표시어가 있을 때 의문문에서 오름-내림조(rising-falling)를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영어의 의문사-의문문 경우에는 문장 끝 경계에서 음높이가 올라갔다 내리오는 형식이 주로 관찰되고, 가부의문문인 경우에는 밑에서 올라가는 형식이 많이 관찰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말의 의문사 의문문과 가부 의문문인 경우에 문장 끝의 경계성조에서 음높이가 둘 다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우리말 의문문에서 내려가는 억양이나 올라갔다 내려가는(fall-rise) 억양도 관찰된다는 점에서 문장 끝 경계성조의 변이와 화자의 태도 및 담화맥락의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인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의문문에서 하강 억양이나 상승-하강(fall-rise) 억양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문장 끝 경계성조의 변이와 화자의 태도 및 담화맥락의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화제표지 ‘은/는’ 자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올라갔다 내려가는 음높이의 변화를 보이고 대체적으로 현저하게 강한 음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문문에서의 화제구의 음높이와 음강세는 해당 지시대상이 신정보인지 구정보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또한 화제구문의 담화기능과 관련되는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조성이 강한 경우에는 화제구가 상항역양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조성이 명시적으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맥락에서는 해당 화제구 사이의 대조 관계가 화제구의 억양이나 화제표지의 음높이 변화 및 음강세에 있어서 운율적 대조를 보이는데 이는 의미적 대조관계를 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예비적 성격을 갖는 분석사항으로써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문형과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화제구문을 주격표지 ‘이/가’가 사용되는 주어 구문과 비교함으로써 양 문형의 의미구조와 운율구조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흥미로운 후속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실험상황에서 추출된 화제구문의 운율구조 연구는 실제 대화에서의 화제문의 운율구조 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김미란, 신동현, 최재웅, 김기호. 2000. “영어문장에 나타난 호격과 동격의 억양 실현 양상의 비교.” *음성과학*, 제7권 제4호, 203-215.
- 김기호. 2000. “억양음운론의 관점에서 본 영어와 한국어의 억양 비교: ToBI 와 K-ToBI를 중심으로.” *언어학*, 1-25.
- Chafe, L. W.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C. N. Li (ed.), *Subject and Topic*, 27-55. New York: Academic Press.
- Couper-Kuhlen, E. 1986. *An Introduction to English Prosody*. London: Edward Arnold.
- Cruttenden, A. 1997. *Into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n-Lewis, C. 1985. *Intonation in Discourse*. London: Croom Helm. 1-17.
- Kim, K.-H. 1993. "Topicality in Korean Conversation: Conversation-analytic Perspective" In P. Clancy (ed.), *Japanese/Korean Linguistics*, Vol. 2, 33-54. CSLI, Stanford University.

- Lieberman, P. 1978. "Direct Comparison of Subglottal and Esophageal Pressure during Speech."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43, 1157-1164.
- Ohala, J. & Ewen W. 1973. "Word and Pitch Chang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53, 345-346.
- Selkirk E. O. 1978. On Prosodic Structure and Its Relation to Syntactic Structure. Distributed by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1980.

접수일자: 2002. 4. 2.

게재결정: 2002. 5. 31.

▲ 황손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우: 138-709)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E-mail: 3443@hananet.net